

9월의 기도



내가 그들로 나야훼를 의지하여
건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야훼의 말이니라
<스가라 10장 12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6년 9월 19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Happy Concert가 일본 동경의 신주쿠문화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박예림, 순복음 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안희순, 오현주, 이성수, 이형춘, 원소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예수님을 누리는 삶

필립 양시(Pillip Yancey) 목사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남미로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 갈 길을 잃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으니 결국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고통 받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닷물을 안마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 하는데 배는 어느덧 바다를 지나 아마존 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아마존 강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입니다. 즉 마시지 못하는 바닷물이 아니고 마실 수 있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아직도 바닷물인줄 알고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 가는데 한 선원이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물에 풍덩 들어가서 마셔보니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자기도 살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민물이니 마시라고 해서 다 물을 마셔서 살았다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면 더욱 목마르고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갖고 여섯째 남편과 살아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지면 모든 갈급한 것이 모두 없어지고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는 먹어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변화가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액세서리로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려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마카오 성회

마카오에서 열린 첫 성회, 역대 최대 개신교 집회로 기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백할 때 신유 기적 곳곳서 일어나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마카오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한 성회가 열렸다. 이번 성회는 DCEM에서 주관하고 마카오국 제에스라사역중심협회와 마카오CBMC(기독교 실업인회)가 공동 개최한 것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기독교 인구가 4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이 곳에서 열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성회에 대해 현지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마침 인근 지역인 홍콩과 대만, 중국 본토에서 성회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참석했고, 상주하는 필리핀인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마카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축복성회(Bless Macau Create the Futur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조용기 목사의 성회는 10일과 11일 저녁 '기적의 밤'이라는 순서로 열렸다. 성회는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기 전 해외 성회 스크린이 방영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전세계 치유의 현장에서 고백한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서 마카오 성회에 참석한 이들은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육간

의 변화를 갈망했다. 조용기 목사는 첫째 날 영어로, 둘째 날은 한국어로 설교했다. 이를 동안 전한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강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생각과 꿈, 믿음, 말이 현실을 뛰어넘는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폐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하나님과 병고침, 목회자의 소명으로 이어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조용기 목사는 "병이 낫길 소원한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마카오의 영적 변화를 기대한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 후 이틀간 강단 앞으로

모인 결신자들과 기도받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신유기도를 선포했다. 듣지 못하는 이들은 수화로 결신을 고백했고,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은 주변의 부축을 받거나 부모의 가슴에 안겨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는 한국어로 '주여 삼창'을 알려주며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틀간 마카오에는 '기적의 밤'이 열렸다. 심장병을 앓던 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했던 자, 걷지 못하던 자, 감상선 암을 앓던 자, 비염으로 고통 당하던 자, 자궁내막증을 앓던 여인의 고통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숫자를 맞추는 등 신유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성회에 왔던 한 여인은 걸어서 강단으로 올라왔다. 부축을 받았던 한 노인도 걸었다. 성회 후 현지인들은 "마카오에서 열린 성회 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30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짐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사납고 교만합니다. 사납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마귀와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이 일어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허무와 무의미의 삶 속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죽음이라

는 모든 존재의 끝을 두려워하고,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기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고통, 가난과 배고픔, 죽음과 절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그 짐을 예수님 멍에에 옮겨 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 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짐은 첫 번째 죄와 허물의 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넘겨준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도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 다 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곁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난을 체험했

습니다. 왜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가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영생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어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도 두렵지 않고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해서도 상처 입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보태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기뻐서 발바둥을 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카오성회 이모저모



▶ 마카오 성회가 어떻게 열리게 됐나

마카오 성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7년 전, 마카오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성도방한성회에 참석하게 되면서부터다. 방한성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은 조셉 리, 자넷 롱 부부는 아시아성도방한성회를 진행하는 에스라 사역중심 마카오지역 대표를 맡으면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를 간절히 소원해 왔다.

마카오에서 경영컨설팅트와 ‘시티 오브 예루살렘’이라는 서점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도박의 도시로 알려진 마카오가 복음으로 영적 회복에 나서길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마카오CBMC(기독교실업인회) 회원이 기도 한 이들은 의사이자 마카오CBMC회장인 로이 쉐과 함께 마카오 기독교인들을 영적 군사로 일으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DCEM이 성회를 주관하였다.

오전에 열린 세미나는 한국CBMC 관계자

와 대만, 홍콩, 미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빙해 마카오 및 중국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 영적 갱신에 나서 마카오가 세속적인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재탄생되길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셉 리 마카오 에스라 대표는 “순복음교회의 신앙열정과 섬김을 마카오 교회와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길 소원했다”고 말했다고, 로이 쉐 마카오CBMC회장은 “기독교실업인들은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 마카오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대하며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마카오는 어떤 나라인가

중국 광둥성 남부에 위치한 마카오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

구’.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됐다. 인구는 약 60만명이며 주 수입원은 카지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카오하면 카지노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마카오는 동양에서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마카오의 기독교 인구는 공식 집계로 4500여 명이다. 70개 교회가 마카오에 설립돼 있고, 이 외에 필리핀 사람들의 유입이 늘면서 필리핀 교회만 30개가 별도로 세워져 있다.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성회는 총 3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중 두 곳은 중국어 예배를, 나머지는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마카오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리홍지엔 목사는 “아시아성도방한성회에 참석한 마카오 성도들은 순복음의 신앙 열정을 배우며 ‘마카오의 영적 변화’를 간절히 기도해왔다. 조용기 목사의 첫 마카오 성회를 통해 이곳이 영적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